

국가폭력 규명...사면발언 사과...검찰·언론 개혁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민주 대권주자 '3인3색' 5·18메시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
 “윤 전총장 5·18메시지 너무 단순”
 “오늘의 광주항쟁은 검찰·언론 개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5·18기념식 참석 ‘임 행진곡’ 제창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광주에 집결, 저마다 '5·18 메시지'를 내놓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겨냥한 '3인 3색' 메시지를 발신했다. 민주당 내 호남 당원의 비율이 높고, 과거부터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했던 만큼 이들 주자들의 메시지도 한층 더 선명해지고 강경해졌다.

여권내 지지를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단죄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쉼 수 없을 정도지만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다"며 "국가폭력 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군 총기난사 사건 당시 여고생이었던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씨의 증언을 전하는 등 '5월 광주'의 아픔과 분노에 대한 공감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전날 도내 거주하는 5·18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하는 것으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가 매개가

됐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를 겨냥, "너무 단순한 것 같다"면서 검찰의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거론, "검찰이 한 가정을 거의 소탕했다"고 되짚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우회 비판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윤 전 총장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다. 이 전 대표는 연초 호남 지지세 이탈의 계기가 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에 대해서도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거듭 몸을 낮췄고, '기본권'과 '평등권'을 화두로 한 개헌론도 이어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찰·언론이라는 양대 개혁을 광주 정신과 연계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광주항쟁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며 "반성할 줄 모르면 반성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무소불위 검찰을 제어할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는 것도 방법"이라고 썼다. 또 "언론은 왜 무서울 게 없을까. 마땅히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벌적 손해보상 강화와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가 지지율 답보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 친문 열성당원과 광주 기반 전통적 지지층에 구애하는 강경한 발언을 던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민의힘도 '호남 구애'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일부 의원들이 5·18 관련 발언을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시절과도 크게 대비된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5·18 41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이었던 지난 7일 광주 방문 이후 11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것이다. 김 대표 대행은 기념식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박자에 맞춰 힘차게 팔을 흔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거에서도 컷오프 통과자의 첫 합동연설회를 광주에서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5·18 개헌론'의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한 노천 카페에서 광주지역 취업준비생들과 청년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최현배 기자choi@

일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정신은) 이미 당 정강·정책에 다 들어가 있다.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그런 부분이 다 토론이 될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 저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전날 "5·18 정신 계승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언젠가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찾은 안철수 청년층 끌어안기 “공정과 정의 없는 통합은 의미 없어”

5·18기념식 참석후 대학생 간담회
“오월정신 계승은 우리 세대의 책무”

가장 뼈아프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랄한 형태의 정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광주를 찾아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한 뒤 광주 동구 동명동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과 미래에 관심을 두고 국가의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여기는 일이 되지 않으면 (야권) 통합의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거리를 뒀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어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대로 살릴 중도·실용적인 합리적 개혁 노선이 중심이 된 통합이어야 한다"며 "(통합 야당이) 지금의 여당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제 역할을 못 한 다는 이유로 국민이 제3당을 포기해버린 것이

그는 거대 양당제에 대한 문제점과 3당의 역할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제"라면서 "예전에는 진보는 깨끗하고, 반면 보수는 부패한데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정권을 주고 받으면서 나라를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정권 탄핵을 거치면서 부패한데다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점으로 지지율이 낮아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 진보정권이 들어섰는데 능력을 떨어지지 않으면 공정한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3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대표는 국립 5·18 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기자들을 만나 "과거와 미래를 잇는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명맥이 이어오는 것은 5·18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송영길·김기현, 광주서 통합의 '주먹밥 조찬'

"5·18 정신 헌법 수록 도와달라"

송영길 제안에 김 대표 대행 공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광주에서 만나 '주먹밥 조찬'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국민의힘 김 대표 대행, 강민국 대변인과 함께 식당에 앉아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며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시정하던 차에 오히려 하자며 제가 두 분을 모셨다"고 썼다. 광주 출신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도 함께했다.

송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조금씩 달라 자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여야 지도부입니다만 그래도 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주먹밥 조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강민국 대변인. <송영길 대표 페이스북>

늘, 의미 있는 행사에 동행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요"라며 "다들 때 다부더라도 뭉쳐야 할 때는 이 주먹밥처럼 해보자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주먹밥은 광주항쟁 당시 노점상인 등이 시민군에게 건넨 음식이다. 광주에서는 오월 정신과 '연대의 나눔'의 상징이 됐다. 한편 참석자들이 따르면 송 대표는 식사 중 "5·18 기념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 대표 대행은 "저 역시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을 했고 우리는 동지다"라고 화답했다.

송 대표는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대표 대행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별도의 화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8개월 연 1.87% (세전/반기해지)

12개월 연 1.80% (세전/반기해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 됩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신협 첫거래시 행복적금 연 4.0% (1인 월20만원 한도, 오픈뱅킹 가입조건) (세전/반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교세중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